



2020년 10월 25일(제1005호) 연중 제30주일

군중주보

발행 : 군중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모든 법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계명”

10년 전에 병사로 한 번, 그리고 지금 군중 장교로 두 번째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교로 군 생활을 하면 조금은 편할 줄 알았는데, 막상 장교로 지내 보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군 생활이 힘든지, 그리고 왜 차이가 없는지 생각해봤습니다. 그 생각 끝에 군법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군대 오기 전 사회에서는 사실 법이 주는 무게감을 느끼지 못했지만, 군대에 오고서는 군법의 무게감을 바로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무게감을 느끼는 것 역시 새로운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았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더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렇게 군법이 무겁게 느껴지긴 하지만 군대도 하나의 공동체로써 지켜야 할 법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고, 또 회사나 작은 단체에도 법이나 규칙들은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나 공동체에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더더욱 법이 필요한 곳이 군대입니다. 그럼 그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일까요? 군법은 군인들을 위해 필요한 법이기도 하지만, 나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있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법이라는 것은 또 하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입니다.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계명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려주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려주신 계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두 계명은 모든 법의 기초가 됩니다. 모든 법은 약한 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랑이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계명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고 살아가게 된다면, 매 순간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민기(요이킴) 신부
동장(31사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탈출 22,20-26
회 답 송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제 2 독 시 1테살 1,5ㄴ-10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마태 22,34-40
영 성 제 송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나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홍익민 안토니오



성인명: 홍익민 안토니오 (洪翼萬 Anthony)

신분: 순교자

활동연도: ?-1802년

홍익만(洪翼萬) 안토니오는 양반의 서자로 태어나 양근에서 살다가 1790년을 전후하여 한양의 송현으로 이주해 살았다. 1801년의 순교자 홍교만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서사촌(庶四寸) 동생이요, 홍필주 필립보와 이현 안토니오의 장인이다.

홍 안토니오는 1785년에 천주교 교리에 대해 듣고는 김범우 토마스를 찾아가 교회 서적을 빌려 읽었으며, 이승훈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이후 그는 교회 지도층 신자들과 교류하면서 교리를 연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다만,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제사를 폐지할 생각을 가졌으나, 주변 환경 탓에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1796년 홍 안토니오는 사위인 홍 필립보의 집에서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만나 교리를 배운 뒤, 자주 신부를 방문하여 성사를 받았다. 또 가까운 신자들과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 활동을 도왔으며, 때때로 주 야고보 신부를 자신의 집에 영접하였다. 당시 그의 집은 평신도 단체인 '명도회'의 하부 조직이요 집회소였던 '6회'의 하나로 선정되어 있었다.

1801년에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홍 안토니오는 안산과 여주로 피신해 다녔다. 그러다가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포도청과 형조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 문초 과정에서 홍 안토니오는 교우들을 밀고하고 천주교를 배교하도록 강요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체포된 교우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밀고하지 않았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떳떳하게 고백하였다. 이때 그가 재판관들 앞에서 대답한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들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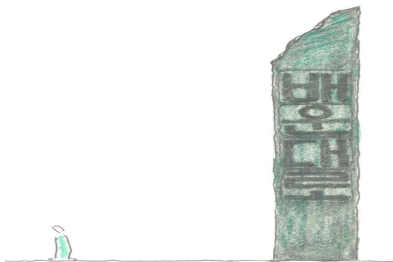
“저는 제가 지은 죄가 용서받기 어려운 것임을 스스로 알면서도, 몇 달 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비로소 체포되었습니다. …… 천주교 신앙에 깊이 빠져 있으니, 마음을 바꾸어 신앙을 버릴 생각은 없습니다. 죽음밖에는 따로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증언한 홍익만 안토니오는 마침내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런 다음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 새남터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02년 1월 29일(음력 1801년 12월 26일)이었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배운 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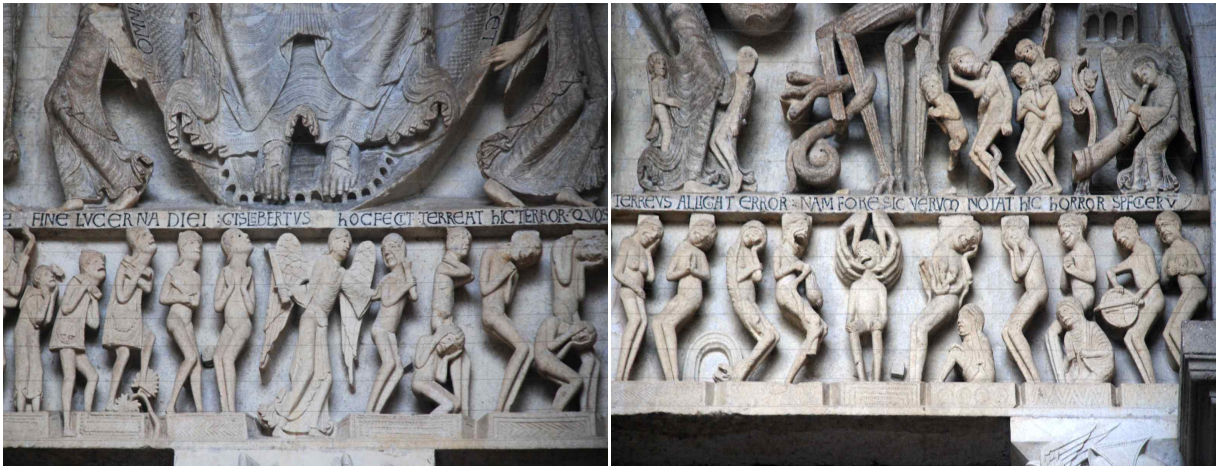
그래,	아는 만큼
뭘 고민하나.	쓰면 되지.
다 배웠잖아.	
다 알잖아.	뭘 그리
	고민하나.
배운 대로	
살면 되고,	

상화이야기

상리지로 교회 입구



예수님의 왼편(우리가 보기에)으로는 천상의 옥좌에 앉아 계신 성모님과 그 옆에는 천상의 도시에 있는 선한 이들이 보이고, 이들 아래에는 천상에 도착한 이들이 보인다.



예수님의 발치 아래(린텔)에는 관에서 깨어난 영혼들이 보이며, 순례자를 상징하는 조개껍질 모양이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이들도 있다. 또 어떤 이들은 갈고리에 목이 찍혀 지옥으로 던져지는가 하면, 갈고리 같은 손이 나와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영혼을 지옥으로 낚아채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0주일: 공군본부 김태희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장회의

때·곳: 10월 27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사취를 따르"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